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017.11.15~2017.11.21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불화의비밀	자현	(주)조계종출판사	6	봉암사의큰웃음(향곡큰스님일화)	법념/서주	답게
2	오직한생각	종범스님	한생각	7	스스로를달빛삼다	원철	휴(한겨레출판)
3	원욱스님의나를바꾸는화엄경	원욱	민족사	8	달라이라마의인생론	달라이라마	마음서재
4	과학의불교	사사키시즈카/법장	모과나무	9	호흡법문핵심강의	남회근	마하연
5	아름다운인생은얼굴에남는다(원철스님산문집)	원철	불광출판사	10	티베트마음수련법로종	따렉깝괸	담앤북스

현불Shop OPEN MARKET www.hyunbulshop.com

‘사랑 연습’ 통해 가공된 마음… 행복 내뿜는 ‘보석’

스님의 사랑수업

원빈 지음 | 이층버스 펴냄 | 1만 3800원





“사랑베풀기 실천할 때 세상보는 안목 열려 어느 순간 사랑의 눈으로 보는 자신 발견”

현대인들은 돈과 명예를 갖지 못하는 것,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것 보다 더 큰 고통은 인간 관계의 어려움이라고 이야기 한다. 내 눈동자에 비치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할 때 우리의 인간 관계는 긍정적 방향으로 변할 수 있다. 인간 관계의 회복을 위한 시작은 어렵지 않다. 단지 내 눈동자에 비치는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연습을 1주일에 하나씩 연습해보는 것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다고 저자인 원빈 스님〈사진〉은 말한다. 내가 사랑받고 존경싶은 만큼 타인도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사람의 본질은 사랑에 가까워지는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 사랑 베풀기를 선택하고 실천할 때 안목이 열리기 시작해 모든 존재가 사랑받아 마땅한 존귀한 존재로 인식되기 시작한다. 단순하지만 강력한 일곱 가지 사랑 연습을 1주일에 하나씩 연습해가다 보면 어느 순간 사랑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책 제목을 보고, 책을 펼치며 이런 질문을 떠올렸을 수 있다. ‘스님이 웬 사랑 수업?’

아마도 근거는 이럴 것이다. ‘스님이 사랑을 알까? 사랑을 해보긴 해봤을까? 결혼도 안 하잖아?’ 등등. 사랑에 대한 오해는 이 지점서 시작된다. 지금부터 이야기하려는 사랑 수업은 이성에 대한 연애 공략서 같은 것이 아니다. 붓다가 모든 존재에게 차별 없이 자비로웠듯 스님들은 자신의 수행력만큼 존재를 사랑하기 위해 연습한다. 그렇기에 스님은 사랑을 하지 않고 모른다는 것은 편견이다. 직접 체험만큼은 아니지만, 간접 체험 역시 매우 생생한 경험일 수 있다. 스님만큼 각양각색의 인생을 간접 체험하는 사람도 아마 드물다. 남녀노소 빈부귀천과 상관없이 수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둑 두는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길이 옆에서 구경하는 이들의 눈에는 훤히 보인다. 그것이 무엇이든 내 문제가 되는 순간 눈앞이 깜깜해지고, 내 문제가 아닌 순간 우리는 그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많은 사람이 겪는 관계 속의 문제를 간접경험 하며, 나름대로 훈수 둔 내용을 기억해 보면 결국 그 답은 사랑이다. 대개 상담 속의 질문은 고통서 벗어나 행복해지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었고, 그 길을 찾는 가장 쉬운 방법은 사랑의 회복이었다. 이 책은 이런 사랑 회복을 위한 7가지 사랑 연습의 실천을 강조한다. 이 사랑 연습을 실천하는 목적은 사랑의 힘을 회복해 관계를 개선하고, 행복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무조건적인 사랑의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다.

현대인들은 맹목적인 믿음보다는 이해를 통한 확신을 가질 때 그 실천이 시작된다. 이 점을 집필하는 동안 항상 되새기며 사랑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1장, 2장, 3장서 제공한다. 만약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고 싶다면 1장은 필수적으로 살펴보고, 바로 4장의 사랑 연습으로 건너뛰어도 무방할 것 같다.

1장서는 사랑에 대한 오해, 사랑에 대한 재정의를 살펴보며 전체적인 책의 틀을 잡고 있다. 2장에서는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3장서는 사랑이 불러오는 행복의 선물들을 살펴본다.

4장은 이 책의 본문에 해당하는데, 7가지 사랑 연습을 소개한다. 사랑을 주고받기 어려운 이들에게 무작정 사랑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 사랑을 베푸는 행위를 7가지로 쪼개서 연습할 수 있도록 구성해 자못 흥미롭다.

5장서는 이러한 사랑 연습이 무르익으면 도달하게 되는 무조건적인 사랑의 상태에 대해 소개하고, 사랑 연습을 실천할 때 주의해야 하는 점들을 되짚었다.

사랑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비난하지 않는다. 이 사랑 연습을 집필하며 사랑하지 못함에 대한 호통보다는 진심 어린 조언 그리고 격려와 응원의 내용을 담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원빈 스님이 강조하는 7가지 사랑연습

무엇을 마음에 품을 것인가에 따라 우리 삶의 방향이 바뀐다. 자신을 사랑할 때 자화상(스스로가 그리는 이미지)이 회복돼 자신의 존귀함을 확신하게 되고, 생명체를 사랑할 때 타화상이 회복되어 눈동자에 비친 이들을 진심으로 존경할 수 있으며, 세상을 사랑할 때 삶의 의미가 회복되어 세상을 밝게 만드는 위대한 의무를 다하게 된다. 그리고 사랑 그 자체를 사랑할 때 우리는 꿈에서 깨어나듯 사랑 그 자체가 되어 존재의 진실을 자각하게 된다.

두려움, 분노, 탐욕, 죄책감, 수치심 등의 두려움 부류 감정으로 향하던 마음의 방향을 바꾸면 긍정, 신뢰, 낙관, 용서, 이해, 존경, 고요함, 축복 등의 사랑 부류 감정으로 나아가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

저자인 원빈스님은 일곱 가지 사랑 연습을 통해 올바로 가공된 원석은 삶의 행복을 내뿜는 가치 있는 보석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하나, 눈동자에 비치는 사람을 공경하고 사랑하기
둘, 눈동자에 비치는 사람에게 기쁘게 인사하기
셋, 눈동자에 비치는 사람을 관찰하며 장점 찾기
넷, 눈동자에 비치는 사람의 장점을 감탄하며 칭찬하기
다섯, 눈동자에 비치는 사람에게 작은 것부터 베풀기
여섯, 눈동자에 비치는 사람의 장점을 따라 배우기
일곱, 눈동자에 비치는 사람과 진심으로 축복하기

▲저자 **원빈 스님**은?

해인사서 출가한 원빈 스님은 중앙승가대를 졸업한 후, 대한민국 육군 군종 장교로 임관해 미래를 이끌 주역인 군인들에게 행복의 길을 알려주려고 노력했다. 강연, 법회, 스터디 등을 통해 많은 대중과 소통하고 있다. 원빈 스님은 현재 산청 송덕사 주지이자, 행복문화연구소 소장, ‘자비도량 만일기도’와 청년커뮤니케이션 리딩모임 ‘블루붓다’의 지도 법사를 맡고 있다. BBS 불교방송 라디오 ‘행복한 두 시’와 BBS 불교방송TV ‘원빈 스님의 최고의 행복학, 불교’를 진행했으며, 현재는 BTN 불교TV ‘청춘토크쇼 절친’을 진행한다. 저서로는 〈같은 하루 다른 행복〉 〈명상선물〉 〈불교인문학 극락추천서〉 〈읽기만 해도 신심 나는 법구경 이야기〉 등이 있다. 팟캐스트, 유튜브와 다음카페 ‘행복문화연구소’를 운영하며 대중과 소통한다.

“외로운 사람에게 촛불은 하나의 세계”

촛불

가스통 바슐라르 지음 | 마음의 숲 펴냄
1만 5천원



프랑스의 과학철학자이자 시 철학자로 프랑스 현대사상사의 독보적인 존재로 알려진 가스통 바슐라르의 〈촛불 La Flammc D’ une Chandelle〉이 출간됐다.

‘시인 가운데 가장 훌륭한 철학자이며, 철학자 가운데 가장 훌륭한 시인’으로 평가받는 이 작품 〈촛불〉은 가스통 바슐라르가 임종 1년 전에 집필한 마지막 저서이다. 수많은 시인들, 예술가들의 필독서인 이 책은 촛불이 우리에게 불러일으키는 시적 몽상에 대한 탐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촛불이 촉발하는 이미지들의 시학, 뿐만 아니라 촛불 앞에서 펼쳐지는 인간의 내면과 영혼을 관찰하고 통찰할 수 있게 이끌어준다.

바슐라르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한다.

“사람들이 사유하면서 꿈꾸고 꿈꾸면서 사유하던 시절, 촛불은 영혼의 고요를 재는 압력계일 수 있었고, 결이 고운 평온, 삶의 세세한 부분까지 내려가는 평온의 척도일 수 있었다. 평온해지고 싶은가? 조용히 빛의 작업을 수행하는 가벼운 불꽃 앞에서 가만히 숨 쉬어보라”

촛불이 광화문 일대를 가득 뒤덮고 물결을 이루던 촛불집회가 어느덧 1주기에 이르렀다. 한국에 밀란 쿤델라, 로맹가리 등 프랑스 문학을 꾸준히 소개 번역해온 이 책의 역자 김병욱은 촛불광장에 나갔다가 이런 궁금증이 들었다고 한다. ‘우리에게 촛불은 대체 무엇인가. 촛불은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러다가 이미 반세기 전에 바슐라르가 집필한 〈촛불〉서 궁금증이 풀어지기 시작했다.

‘작은 빛에 대한 몽상은 우리를 친숙함의 골방으로 데려간다. 우리 내면에는 오직 가물거리는 빛만 용인하는 어두운 구석이 있는 것 같다. 예민한 마음은 부서지기 쉬운 가치들을 사랑한다. 그런 마음은 투쟁하는 가치들과 하나가 되기에 어둠에 맞서 싸우는 미약한 빛과 하나가 된다. 그래서 작은 빛에 대한 우리의 모든 몽상은 오늘날의 삶에서도 심리적 실재성을 유지한다.’

이 책은 이미 오래전에 여러 판본이 〈촛불의 미학〉이란 제목으로 나온 바 있다. 대학에 재직을 하면서 가스통 바슐라르로 논문을 쓴 역자는 당신만의 방식으로 이 책에 깊이 빠져 사람들에게 〈촛불〉이라는 책의 존재를 새삼 일깨워주고 싶었다. 덧붙임으로 이 책을 새로 번역한 의미와 함께 맨 마지막 장에 담은 옮긴이 해설 ‘〈촛불〉 고독한 몽상의 시학’에서는 한평생 과학인식론을 연구하는 철학자이자 시적 몽상을 연구하는 시학자의 삶을 살았던 바슐라르의 사유의 축과 몽상의 축 그리고 과학적 사유와 시적 몽상의 사유에 대한 역자의 해석이 이채롭다. 총 5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마치 아름다운 한편의 시를 읽는 것과도 같은 몽상과 상상력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한다. 단어와 문장 사이사이 책 자체가 하나의 촛불이 되어 책을 읽어 내려가는 독자들의 내면에 고요히 타오르며 희미하게 꺼져가는 영혼을 밝혀준다.

김주일 기자

▲저자 **가스통 바슐라르**는?

철학자, 인식론자, 과학철학 및 과학사 교수, 문학 비평가, 시인 등 다양한 면모의 활동으로 프랑스 현대 사상사서 독보적인 존재로 평가받는 작가이다. 가스통 바슐라르(Gaston Bachelard, 1884-1962)는 프랑스의 철학자로, 1927년 〈근사적(近似的) 인식에 관한 시론〉으로 학위를 취득하고, 디종 대학 교수를 거쳐 1940년 파리 대학에 초빙돼 과학사 · 과학철학을 강의했고, 동 대학의 과학사 · 기술사 연구소장을 지냈으며, 1954년 명예교수가 되었다. 또한 아카데미 회원으로 선출되고 국가문학대상을 수상했다. 데카르트적 인식론과 비뉴턴적 역학 개념 등을 도출하게 되는 과학사 연구 중에 이른바 객관적 과학 이론의 인식론적 방해물로 개입하는 인간의 꿈과 상상력의 존재, 그 무한 깊이의 힘과 매력을 발견하게 된 그는 향후 그것들의 개성적 표현인 구체적 문학 작품을 종횡무진 읽어가면서 그것들에 관한 새로운 정신분석학적 음미에 몰두하였다. 그는 물 · 불 · 공기 · 흙의 4원소에 대한 독자적인 ‘물질 상상력’ 이론을 정립함으로써 프랑스 신비평 분야의 대부로 떠받들어지고 있다. 1962년 파리에서 사망, 고향인 샹파뉴의 바르 쉬르 오브에 묻혔다.

“가야기획에서 만드는 도서출판 하이의 불교서적은 꼭 챙겨두어야 할, 전문성을 가진 책입니다!”

작명록은 (한국 278성씨 , 성씨별로 완벽하게 작명한 이름 6,065,726개를 음양, 음오행, 원격 형격 이격 정격, 수리오행에 모두 맞게 지은 이름을 사주에 맞게 찾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新사주연구
사주 공부에 “꼭” 필요한책 | 저자:지안스님



프랑크 영어 이름
*작명록(上 · 下) 구입시 무료 증정합니다.



작명록(上 · 下)
완벽하게 좋은 이름짓는 책 | 저자:지안스님



불교 의식 시리즈(1~5)
불교 의식에 “꼭” 필요한 책 | 저자:지안스님

가야기획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140 삼송테크노밸리 B동 433호 | 전화 02)379-2400 | 팩스 02)379-2401 | gaya2400@nate.com